

# 행정·시민 중간지원조직으로 사회문제 해결

# 전주관광기념품 팝업스토어 오픈

### 전주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주시 사회연대·혁신라운드테이블 세미나 개최...중간지원조직들의 혁신적 역할 필요 주장

마을돌봄, 생태교통, 자원순환, 에너지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의 혁신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는 지난 9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전주시사회혁신센터와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전주시에너지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주시 사회연대·혁신라운드테이블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묘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창복 성공회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 뉴딜, 중간지원조직'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유창복 교수는 "행정과 시민,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이어주는 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라며 "특히 마을 주



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돌봄망이나 마을정원 및 마을학교, 재활용 정거장 등 로컬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선희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소장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나타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

적인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로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자율성과 창의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마을돌봄, 생태교통, 자원순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소장은 중간지원조직들의 합체인 중간지원조직협의회를 운영해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우연 전주시 정책연구원은 '코로나 19 동향과 사회연대혁신정책 아이디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선결제 클라우드플랫폼 구축 △전통시장 디지털전환을 위한 청년 매니저, △마을돌봄센터에 온라인수업 인프라 제공, △환경활동 타임뱅크, △구도심 학교시설 커뮤니티공간 복합화, △전주형 로컬랩 등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원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장과 오은주 전주시주거복지센터장, 최우순 전주시 에너지센터장 이경진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코로나 시대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 정책과 중간지원조직 연대·협력 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브랜드인 'YOUR TASTE JEONJU'를 활용해 만든 관광 굿즈(기념품) 판매 상점이 오는 10월 문을 연다.

시는 전주한옥마을에 10월 오픈 예정인 '2021 YOUR TASTE JEONJU 팝업스토어(임시 상점)'에 입점할 업체를 다음 달 19일과 20일 양일간 접수한다.

관광거점도시 전주 BI의 인지도를 강화하고 전주만의 다양한 관광 굿즈를 개발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전주의 문화 또는 관광지 특성을 모티브로 한 공예품이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관광기념품 등을 만들어 판매하게 된다.

팝업스토어에 입점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는 상품 촬영이나 리플릿 제작 등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상위 6개 작품에는 500만 원 미만 매출 시 차예분을 매입해주는 방식의 매출 보증을 지원한다.

팝업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전주 여행'을 키워드로

관광거점도시 전주 BI를 활용해 만든 2작품(세트) 이하, 작품별 2만 원 이하의 완제품을 출품하면 된다.

참가를 위한 BI 일러스트 이미지와 참가신청서 등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착한공작소 협동조합(goodhand5@naver.com, 063-284-0403)으로 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달 28일과 27일 시제품에 대한 대면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품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국내·외 관광객이 구매·선물하고 싶은 기념품을 위주로 총 15개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는 BI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관광 굿즈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운영이 전주시 관광기념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거점도시 전주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노송광장, 상상력·모험심 키우는 어린이놀이터!

### 최근 파라솔 있는 벤치 테이블 3개소 설치하고 숲밭줄 놀이도 강화 바구니그네·짚라인·통나무 터널·모래놀이·트리하우스 등 인기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자연놀이터이자 가족 단위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시는 최근 무더위를 피해 노송광장 바다분수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파라솔이 있는 벤치 테이블 3개를 설치했다.

노송광장 소나무 그늘 아래에는 숲밭줄 놀이를 팝업 형태로 설치해 해먹, 밧줄그네, 버마다리, 흔들다리 등을 뜨거운 태양을 피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설치한 바구니그네의 경우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뿐만 아니라 짚라인과 통나무 터널, 모래놀이터, 트리하우스, 바둑놀이길 등도 특색 있는 놀이공간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에게 맘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노송광장을 제공할 것"이라며 "노송광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우

리 사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2014년부터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놀이의 중요

성을 시정의 핵심으로 삼고 숲놀이터 10개소, 덕진공원 맘껏 놀이터, 학교 놀이터 환경개선 8개소, 공공놀이터 개선 8개소를 추진해 왔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유소년야구단, 전국 대회 '우승'

전주 유소년 야구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토했다.

전주시유소년야구단(감독 박동주)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3~4일 강원도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에서 열린 제19회 대한유소년야구연맹 회장배 대회에 참가해 유소년(U-13) 백호리그 우승컵을 거머쥐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유소년 백호리그에는 총 18팀이 출전한 가운데 전주시 유소년야구단은 결승전에서 동해시유소년야구단을 상대로 8-1이라는 압도적인 승

리를 거두고 우승을 일궈냈다.

감독상은 박동주 감독이 받았으며, 최우수선수로 이준준 선수가, 우수선수로 장민우 선수가 뽑혔다. 강인석(전라중 1년) 등 8명은 주니어(U-16) 경기에 출전해 4강까지 진출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박동주 감독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수들의 탐과 노력의 결과로 좋은 성적을 거두 매우 기쁘고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주시 유소년들의 야구 꿈

나무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성교육활동가 양성 심화과정 운영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오는 20일까지 성교육활동가 양성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심화과정은 지난달 교육을 받은 성교육활동가 양성 기본과정 교육생 18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총 10회(30시간)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상별 성교육 지도 방법 ▲체험관 및 찾아가는 성교육 방법 ▲조별 강의안 작성과 발표 등으로, 실제 강의 시연과 피드백이 실시된다. 심화과정 수료자는 오는 8월부터 연

말까지 월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문화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하는 스터디 활동을 한다. 이어 성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연하는 과정에 합격하면 성교육활동가로 위촉된다.

심기본 센터장은 "성교육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양성한 성교육활동가를 통해 지역사회 학교와 기관의 교육 욕구에 맞는 성교육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